

# Essay 바다에 가는 이유



한 승 원 <소설가>

...마녀처럼 음탕한 바다였다. 시꺼먼 빛깔의 한없이 큰 입과 끝없이 넓고 깊고 부드러운 자궁을 가진 바다는 탐욕스럽게 별들을 품에 안아 쌀을 일듯이 애무하고 있었다. 거무스레한 해무(海霧)를 머리카락처럼 산발한 밤바다의 철썩거림은 어찌면 별들을 훑고 빨고 입맛 다시는 소리였다.

이것은 나의 졸작 <낙지같은 여자>의 한 대목이다.

내가 바다에서 마녀를 발견한 것은 내 속에 마녀스러움이 있는 까닭일 터이다. 20대 초반의 나는 여름밤이든지 가을밤이든지 겨울밤이든지 봄밤이든지 가림없이 바닷가를 귀신같이 헤매곤 했다. 술을 마시고 그러기도 했고, 맨승맨승한 채로 그러기도 했다. 그 시절 나는 내 견잡을 수 없는 미친기를 「열정병」이라 부르기도 하고 「건강병」이라 부르기도 했다.

왜 그렇게 바다 쪽의 이야기만 쓰곤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는 도회 쪽으로 나와야 하지 않느냐고 걱정스럽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나는 그들에게 바다를 배우라고 말을 하곤 한다. 바다 배우기는 생명력 배우기다. 바다가 가지고 있는 마녀스러움과 그 파도들의 갈피갈피에 어

려 있는 어둠의 뜻을 배워야 우리는 참삶의 뜻을 터득할 수 있다. 바다의 마녀스러움과 어둠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다. 바다와 가까이 살아간다는 것은 행운이다.

우리 땅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는 바다를 제대로 이용할 줄을 모른다. 바다는 보고를 감추고 있을 뿐 드러내 보여주지를 않는다. 일찍부터 바다로 진출하였다면 세계를 손아귀에 쥌 수도 있었을텐데….

우리는 우리의 한없는 잠재력을 모르고들 있다. 농촌만 알 뿐 어촌에 대해서는 모른다. 알려고도 하지들 않는다. 해양으로의 진출은 개해업을 배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나는 원초적인 것들, 원형질적인 것들의 모습을 바다에서 찾곤 한다. 나는 싱싱해지고 싶으면 바다를 찾아간다. 바다는 언제든지 나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운차게 출렁거린다. 나는 바다의 물너울 속에 포용당하고 나는 그 물너울을 수용한다.

부산의 해운대 앞바다와 송도 앞바다, 거제도 해금강 근처의 바다, 목포의 만성리 앞바다, 여수의 오동도 근해, 남해 바다, 제주 해협, 인천 앞바다, 소래포구의 거무칙칙한 바다, 내 고향 득량 바다, 충무 앞바다와 한려수도, 동해 바다의 푸른 물구비를 나는 미치고 환장할 만큼 사랑한다.

여수에 가면 나는 부산까지 배를 타고 가서 기차를 탄다. 부산엘 가도 가끔 여수까지 배를 타고 가서 기차를 타기도 한다. 제주도엘 가면 비행기를 버리고 바닷길을 통해 완도로 건너온다. 가끔씩 다도해 지방을 여행한다.

바닷가에 가면 나는 한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곤 한다. 바닷가에 있는 여관방을 잡아 든다. 바다 냄새에 굶주린 귀신같이 갯내를 맡으면서 밤새도록 헤매어 다닌다. 전생에 나는 한 마리 물고기였는지 모른다.

바다에 가면 옷(욕심)을 벗을 수 있다. 맨살 맨몸이 될 수 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은 정말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새롭게 인식하고 돌아오게 된다.

바다는 우리에게 허무를 가르쳐 준다. 천년을 한결같이 살아갈 것처럼 마음먹게 해 주기도 하지만, 내일 당장 죽어 없어지더라도 한스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해 준다. 바다는 우리를 혼자가 되도록 해 주고 자기 실존을 차갑게 대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바다는 우리들의 영원한 신앙의 대상이다. 어찌할 수 없는 화두이다.

우리들은 그 바다와 화해하려 하지만 그것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파도는 그 화해를 거부하는 오만스러운 몸짓이다. 그 몸짓과 대좌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실체와 맞대면하기이다. 하는 일이 풀리지 않으면 나는 바다에 간다. 가서 모든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훌쩍 벗어 던지고 며칠을 지내고 나면 풀린다. 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바다에 가 보라고 이르곤 한다.

우리의 먼 조상은 바다에서 기어 나왔다. 우리 피 속의 소금기와 바닷물의 소금기는 그 비율이 똑같다. 우리들 가슴속의 맥박과 바다의 울동은 같다. 우리는 누구든지 썰물 때는 허전하고 밀물 때는 충일하기 때문에 허둥대는 것이다. 우리의 바이오리듬이라는 것은 달(月)의 주기하고 같다.

송도의 한 여관방에서 며칠을 뒹굴면서 나는 기다림의 뜻을 알았다. 송도 앞바다에는 상선들이 많이 떠 있었다. 그것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머지않아서 멀고먼 바다의 물너울 속을 헤엄쳐 갈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 바다를 떠나면서 나는 생각했다. 기다림의 뜻과, 먼 바다로부터 한결같이 밀려와서 모래톱을 두드리는 파도의 부지런함과 끈질김을 배우고, 싱싱해져서 자기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